

해남군 '맑은 물 안정 공급' 속도낸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9개 상수도 사업 1227억 투입

해남군이 군 전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추진 중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9개 상수도 사업에 총 사업비 1227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삼산면 일부와 화산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는 241억원을 투자, 현재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했다.

마을별 지선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관로를 매설 중이다.

총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교도소와 우

리종합병원, 농공단지 및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된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산면 1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도 했다.

현산면 풀 복지 확대사업에 76억원을 추가로 들여 연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편다.

노후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본격화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16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해남읍 및 송지면 일원 노후 상수관로 40km를 교체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이 27%에서 15%까지

줄어든다.

해남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4000㎥의 생활용수를 해남읍 일부 지역과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해남취수장 개량을 위해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4억원, 섬지역인 화산 삼마도의 식수원 개발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된 가뭄과 수원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송지면에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8월 완료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2027년까지 해남군 전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군민 불편을 위해 상수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 발굴 나서

'복지사각 제로화 추진단' 구축 고령·장애인 가정 방문 권리 구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도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단'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이웃의 재발견' 지원대상에 선정돼 사업

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단을 구축했다.

읍·면별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반은 현장 방문조사를 벌이며 선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과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적극적 권리구제에 나선다.

협의체는 겨울철 난방비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기준에 벗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가구당 30만원 상당 난방유를 지원했다.

이중만 민간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신안군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무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3호 개소

무안군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문을 열었다.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삼향읍 예수비전교회에 무안비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초등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조성했다.

개소식에는 김산 군수와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임동현 부의장, 임운택 의원, 박쌍배 의원, 정은경 의원, 주일한 예수비전교회 목사, 주민 등이 참석했다.

무안비전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수비전교회에 위탁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미만(초등학생)이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아동은 놀이와 학습,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6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오



무안비전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식. 김산 무안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맞벌이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근무자 상시 배치

3~6월 출고 오전 8시로 앞당겨

영광군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자를 상시 배치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상시 근무제는 농사철인 3~6월과 10~11월 등 연중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농번기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연장 근무를 마련했다.

영광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은 이 기간 상시 근무로 전환한다. 출고(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8시로 당겨진다.

총 24명의 인력이 2개 조로 나눠 현장에 투입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휴일 전날 오후 5시에 농기계를 출고하는 '임대 농기계 사전 출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사전 출고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길 예정이다.

고운자 영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번기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실화를 기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경찰 개학철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목포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최근 목포하당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사진)을 벌였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어린이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목포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 교통안전 범시민 협의회'가 참여했다.

협의회와 하당초 교직원 등 40여 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교통질서 준수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립을 당부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목포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어린이 승·하차 안전 울타리 등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도 강화한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위해 스쿨존뿐만 아니라 목포시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기자 노트

신안 주민들 통 큰 결단에 박수를



이상선

신안군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 2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신안 해상풍력 어업인 수용성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을 논의하는 자리로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장수 신안군어업인연합회장, 이도명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체 위원장, 각 어업인단체 대표와 발전사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8.2GW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신안군 주민들은 연간 약 3000억 원의 엄청난 배당금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12만여 명의 고용창출로 지방소멸위기도 벗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신안군으로서의 명운을 건 최대 역점 사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말짱 허사다. 여러 지자체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어업인들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안 어업인들은 말했다. 신안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해상풍력사업을 수용하고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

표했다.

이날 14명의 어업인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고 빠른 조성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자 보고회 자리에서는 이들의 결단에 격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고향을 지키려는 어업인들의 뜻깊은 마음이 전해진 이유에서다.

이러한 진심은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4년간의 진통 끝에 주민들의 이익 공유제 등으로 다른 지역의 벤치마크대상이 되는 등 성공한 점과 신안이 관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적지로 무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주민 이익공유제로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고향을 지키고 미래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근거가 됐다.

이번 애항심이 담긴 통 큰 결단으로 해상풍력단지사업은 새로운 정기를 맞았다. 이 사업이 현 정부 들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난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별법 마련이나 전기에너지 전송 기반시설 마련 등 현안도 시급하게 해결점을 찾아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sslee@kwangju.co.kr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 재개장 "토·일 치유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4월말까지 미디어 아트·아로마·요리·도자기 교실 등 무료

완도군이 해양문화치유센터 재개장 행사로 다음달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완도군 해양문화치유센터는 16억원을 들여 신지 명사십리 일원 327㎡ 부지에 4개동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조경 및 시설정비로 인해 임시 휴관했다가 이번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됐으며 시청각동에서는 미디어아트, 후각동에서는 아로마교실, 미각동에서는 요리교실, 촉각동에서는 도자기교실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일 하루에 2회, 2시간씩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 체험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예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센터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시범운영에는 완도의 김, 다시마를 이용한 '해조류 장아찌 만들기', 완도 비파를 첨가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의 요리 교실 프로그램 모습.

한 '완도 향수 만들기'를 진행해 614명이 참여한 호응을 얻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고 해양치유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현대삼호중, 중대재해 예방 사외협력사 안전진단

12월까지 10곳 안전·공무 부문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안전의식 향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외협력사 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사진〉 최근 대불산단 마린팩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작업 위험도가 높고 상시 근로자가 많은 사외협력사 10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과 공무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현대삼호중은 진단 후 업체별별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 조치 등 필요사항을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 사외협력사 안전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불특정계 자기비파괴검사(MT)도 실시한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